Ewha Global Excellence Program

미술사학과×사학과 융합연구단

「텍스트와 이미지의 융합

: 미디어 전환 시대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 미술사학과 학술연구사업 5차 보고서

워크숍: 『일본 3부작 *The Japan Trilogy*』 속 동아시아 역사와 기억의 재구성

강연: 일본 3부작 미술, 역사, 그리고 이미지의 정치학 (호 추 니엔,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2026. 08. 03.

책임 교원: 최종철 교수

# 워크숍 보고서

| | |
|---|---|
| 워크숍 주제 | 『일본 3부작 *The Japan Trilogy*』 속 동아시아 역사와 기억의 재구성 |
| 지도 교수 | 최종철 교수 |
| 일정 | 2026.07.23~2026.07.24 |
| 장소 | 학관 512호 |
| 참여자 | 박지혜-팀장(252HAG06), 현채이(242HAG21), 안유진(242HAG26), 이규리(252HAG12), 김유영(252HAG31) |
| 활동 내용 | **워크숍 (학관 512호, 7월 23일, 15:00-19:00)**<br>초청 강사에 관한 선행 연구를 파악하고 함께 읽었다. 호 추 니엔의 작품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교토 학파와 대표 작품 『일본 3부작 The Japan Trilogy』(2019-2021)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일본 3부작』에 속하는 각각의 작품 형식을 분석한 후 요약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올가을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 개요를 살펴보며 그의 작업과 전시기획이 어떤 지점에서 맞닿아 있을지에 관해 토론하였다. 이후, 강연 당일 초청 강사와 청중들에게 공유할 질문을 선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팀원들끼리 모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
| 참고 문헌 | 김지훈. 「호 추 니엔展: '제국주의'라는 유령」. 『아트인컬처』 9 (2024): 76-79.<br>→ 호 추 니엔의 『일본 3부작』은 일본의 20세기 초 철학 운동이었던 '교토학파'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교토학파의 '절대무'는 민족주의와 대동아공영권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용되었다. 호 추 니엔은 이에 기반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논리를 미디어 작업을 통해 비판적으로 해체한다. 나아가 그는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 붕괴된 시간성을 표현하고, 비서구 근대성의 모순과 중층적 면모를 탐구하며 시간과 장소가 교차하고 횡단하는 작업을 구현한다.<br><br>(재)광주비엔날레.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전시개요」. 『광주비엔날레』.https://www.gwangjubiennale.org/gb/exhibition/biennale/mainexhibition.do?subPage=overview (2026년 7월 21일 검색).<br>→ 제16회 광주비엔날레의 주제,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는 "예술적 실천을 통해 삶의 새로운 역량과 형태가 어떻게 |

| | |
|---|---|
| | 출현하는지를 탐구”하고, 실천을 통해 지속되는 ‘변화’를 결정된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의 ‘방법’으로 접근한다. 예술적 실천은 “끈기, 혹은 지속성과 실험의 살아있는 모델”로서, “개인과 공동체가 변화의 경험을 체화해 나가는 누적된 기술”이 된다. 핵심 개념인 ‘변화’와 ‘실천’을 중심으로, 호 추 니엔은 제16회 광주비엔날레를 “서로 다른 규모와 영역에서 이뤄지는 실천과 실험들이 한자리에서 서로 대화하고, 질문을 던지는” 만남과 연대의 장으로 구성한다. |
| 자체 평가 | 최종철 교수의 지도하에 워크숍은 진행되었으며 5명의 팀원이 참가하였다. 초청 강사의 주요 활동을 파악하고, 초청 강사의 대표 작품『일본 3부작』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서 교토 학파에 대한 참고 문헌을 읽고 작가가 탐구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고 문헌을 통해 교토 학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워크숍은 토론, 정리, 질문 선정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 워크숍의 경우 초청 강사와 지도 교수에 의해 참고 문헌 선정이 이루어졌으며, 팀원들 모두 문헌을 통해 동아시아 철학 및 역사적 사실 측면에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 부록1. 워크숍 증빙 자료

| 지도 교수 | 최종철 교수 |
|---|---|
| 참여자 | 박지혜-팀장(252HAG06), 현채이(242HAG21), 안유진(242HAG26), 이규리(252HAG12), 김유영(252HAG31) |

**1) 발제문**

본 워크샵은 호 추 니엔(Ho Tzu Nyen, 1976- )의 일본 3부작에 대해 분석한 바를 공유하며 진행하였다. 발제는 작품 제작 시기순으로 전개하였다.

1. *Hotel Aporia* (2019) 분석

〈*Hotel Aporia*〉는 다이쇼 시대에 건립된 옛 일본식 여관 기라쿠테이에 설치된 장소 특정적 설치 작품이다. 기라구테이는 1940년경 가미카제 특수공격부대가 자살 임무 수행 전 마지막 밤을 보낸 곳이자, 전사 후 유가족들이 모여 희생을 기렸던 복잡한 역사적 층위를 지닌 장소이다. 작가는 이 장소를 교토 학파 2세대 사상가들, 선전 애니메이터 요코야마 류이치(横山 隆一, 1909-2001), 영화감독 오즈 야스지로(小津安二郎, 1903-1963), 가미카제 조종사들, 그리고 과거 여관 여주인이 함께 머무는 공간으로 상상한다. 작품은 파도, 바람, 보이드, 어린이 라는 네 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된 6채널 비디오와 거대한 팬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품의 대본은 작가와 큐레이터, 번역가 등이 교환한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Hotel Aporia*〉는 오즈의 영화를 인용하지만, 영화 속 여배우들의 얼굴은 의도적으로 지워진 채 공백으로 처리된다. 이는 그들의 얼굴을 어떤 얼굴이든 투영될 수 있는 스크린으로 변모시킨다. 작품에서 오즈의 영화와 요코야마의 제국주의 선전 만화 영화가 중첩되기도 한다. 이는 오즈의 향수 어린 민족주의가 요코야마의 선전물과 시각적 주제적 요소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레이션과 바람 또한 작업의 중요한 요소이다. 선풍기의 소리와 바람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몰입을 유도하는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중첩되는 내레이션은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낭독되는 분산된 서사 형식을 통해 의도적인 불협화음과 해석의 미묘한 층위를 드러낸다. 〈*Hotel Aporia*〉는 위의 다양한 장치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를 둘러싼 복잡한 역사적 층위와 이가 사용한 이미지 문화, 기억을 탐구한다.

2. *Voice of Void* (2021) 분석

<*Voice of Void*>는 교토학파 철학자들의 저술과 발언, 그리고 이들이 연루되었던 역사적 사건을 세 개의 비디오 설치와 하나의 VR 체험으로 재구성한다. 첫 번째 영상인 '사아미 다실'은 교토에 실제로 존재했던 다실을 모델로 하며, 두 개의 투사 스크린이 겹쳐져 특정한 위치에서 하나의 단일 이미지처럼 보이도록 구성된다. 뒤쪽 스크린에는 다실의 공간과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 1870-1945)의

『일본 문화의 문제』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고, 앞쪽 스크린에서는 교토학파 제2세대 학자 네 명이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진행한 '세계사적 입장과 일본' 좌담회가 재연된다. 두 번째 영상인 '감옥'은 교토학파의 좌파로 불린 도사카 준(戸坂潤, 1900-1945)과 미키 기요시(三木清, 1897-1945)를 다룬다. 세 번째 영상인 '하늘'에서는 관객이 양쪽의 두 스크린 사이에 놓이고, 화면에는 애니메이션의 거대 로봇을 연상시키는 메카들이 하늘에 떠 있는 장면이 펼쳐진다. 이 장면은 다나베 하지메(田辺元, 1885-1962)가 1943년 교토제국대학에서 발표한 「사생관」의 낭독과 결합되며, 국가를 위해 가미카제 부대의 조종사로 징집되어 죽음을 앞둔 학생들의 희생에 의미를 부여하려 했던 강연의 내용을 시청각적으로 재현한다.

마지막 '좌선실'은 VR 공간으로, 앞선 세 개의 영상 설치를 수직적인 3층 구조 안에 다시 배치한다. 관객이 앉아 있을 때에는 실제 좌담회의 속기사였던 오야 마스조(大家益造)의 아바타가 되어 네 학자의 발언을 기록하며, 쓰는 행위를 멈추면 오야가 훗날 중국에서의 전쟁 기억과 죄책감을 담아 쓴 단가 「침묵의 장」을 듣게 된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관객은 다나베의 「사생관」을 들으며 동시에 자신의 신체가 서서히 공허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경험한다. 반대로 몸을 낮춰 바닥에 누우면 '감옥'으로 내려가 미키 또는 도사카의 아바타를 체현하게 된다. 또한 VR에는 영상 설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네 번째 공간이 포함되어 있다. 관객이 자리에 앉아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면 시야가 전환되며 별도의 좌선실이 열리고, 이곳에서 니시다 기타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방은 거의 감지되지 않을 만큼 느린 속도로 끝없이 팽창한다.

3. *Night March of Hundred Monsters* (2021) 분석

<*Night March of Hundred Monsters*>는 일본의 요괴를 매개로 태평양전쟁기 일본 제국주의와 동남아시아의 역사를 재구성한 영상 설치 작업이다. 이 작품은 요괴와 그림 두루마리, 애니메이션 등 신화적·대중적 이미지를 끌어온다. 작가는 작품의 형식을 그림 두루마리와 결합하여 일본의 과거를 향한 행진을 연출하였다. 요괴들의 행렬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말라야와 싱가포르 점령에 관여한 일본의 역사 인물들이 함께 등장한다. 또한 군인, 첩보원, 철학가 등 전쟁과 식민지 점령에 관여한 인물들도 행렬에 편입된다. 이로써 작품은 전쟁의 역사가 기록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화와 선전,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구성되어왔음을 환기한다.

**2) 참고 문헌**

김민경. 「아시아 현대미술, 싱가포르 작가 제레미 히아, 호 추 니엔」. 『월간 미술세계』 7 (2025): 57-61.

김장언, 문지윤. 「호추니엔 예술전략에서 발견되는 알고리즘에 관한 탈식민적

탐구」. 『호추니엔: 시간과 클라우드』. 김장언 엮음, 120-125. 아트선재센터, 2024.
김지훈. 「호추니엔展: '제국주의'라는 유령」. 『아트인컬처』 (2024): 76-79.
(재)광주비엔날레.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전시개요」. 『광주비엔날레』. https://www.gwangjubiennale.org/gb/exhibition/biennale/mainexhibition.do?subPage=overview (2026년 7월 21일 검색).
小玉 梨花 et al, 「喜楽亭の変遷と保存手法に関する研究」. 『日本女子大学紀要 家政学部第』 66 (2019): 95-100.
松本和也. 「現代美術として京都学派を再演するーホー・ツーニェン《ヴォイス・オブ・ヴォイドー虚無の声》(2021)」. 『人文研究』 207 (2022): 1-36.
「ホー・ツーニェン『旅館アポリア』」. *Real Kyoto* (2019): https://realkyoto.jp/review/ho-tzu-nyen_ozaki/ (2026년 7월 23일 검색).
Davis, Bret W. "The Kyoto School."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06. Revised 2026. https://plato.stanford.edu/entries/kyoto-school/ (2026년 7월 21일 검색).
Kunimoto, Namiko. *Imperial Animations in Transpacific Contemporary Art*.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26.
Maerkle, Andrew. "Ho Tzu Nyen: Pt I—Leap Beyond Void." *ART iT*. October 20, 2020. https://www.art-it.asia/en/top_e/admin_ed_feature_e/211811/ (2026년 7월 22일 검색).

**3) 워크숍 증빙 사진**

(좌) 오프라인 (2026년 07월 23일, 학관 512호)
(우) 강연 당일, 워크숍 일원과 호 추 니엔 예술감독




# 강연 보고서

| | | | |
|---|---|---|---|
| 초청 강사 | 호 추 니엔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 | |
| 강연 제목 | 일본 3부작: 미술, 역사, 그리고 이미지의 정치학 | | |
| 일시 및 장소 | 2026년 7월 24일 | 장소 | 학관 108호 |
| 참석인원 | 약 50인 | | |
| 강연 내용 | 본 강연에서 호 추 니엔(Ho Tzu Nyen, 1976- )은 자신의 일본 3부작 〈*Hotel Aporia*〉(2019), 〈*Voice of Void*〉(2021), 〈*Night March of Hundred Monsters*〉(2021)을 소개하며, 동남아시아라는 개념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 과정에서 탄생했음을 지적한다. 그는 하나의 종교·언어·정치체제로 통합된 적 없는 지역의 정체성이 단일한 정체성으로 고려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바탕으로,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일본 중심의 범아시아주의가 공존하는 교토학파의 양가적 담론을 탐구한다.<br>호 추 니엔은 3부작 이전에 광주비엔날레에서 교토학파 텍스트를 낭독하고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 후 작가는 교토학파 사상에 관한 연구를 제2차 세계대전 속 일본의 가미카제 특수공격부대 구사나기 부대가 출격 전 마지막 밤을 보낸 역사적 공간 기라쿠테이와 연결하여 〈*hotel aporia*〉를 제작했다. 작품은 로토스코프 기법으로 편집한 선전영화의 파운드 푸티지, 오즈 야스지로(小津安二郎, 1903-1963)의 '다다미 쇼트' 차용, 거대한 팬의 바람과 소리의 촉각적 경험을 통해 전통적인 영화관이나 박물관과 구별되는 신체적 경험을 촉진한다. <*Voice of Void*〉는 교토 학파를 더욱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영상 및 VR 설치작품이다. 영상은 교토학파 철학자의 좌담회가 일어났던 다실, 국가에 위험한 좌파로 분류되어 투옥 후 옥사한 두 철학자의 감옥, 가미카제 전투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있는 하늘로 구성되어 있다. VR 공간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위의 세 공간을 다르게 경험할 수 있게끔 한다. 작업은 관람객의 신체적 참여를 유도하며, 그들이 역사적 기억의 해석과 재구성에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Night March of Hundred Monsters*〉는 작가가 교토학파의 진면목을 탐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동아시아 전통 설화인 백귀야행을 차용하여 사소하고 잊힌 신들의 존재들을 일본의 요괴 형상으로 재현한 작업이다. 작품은 신 | | |

| | |
|---|---|
| | 화적이고 대중적인 이미지를 통해 태평양전쟁기 일본 제국주의와 동남아시아의 역사를 재구성한다.<br>결론적으로 호 추 니엔의 일본 3부작은 동남아시아의 정체성 구축 과정을 추적하며, 파운드 푸티지(found footage), 대중적인 이미지, 로토스코프(Rotoscoping), VR, 설치 등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활용해 기억의 다층성을 시각화한다. 이는 동아시아의 복잡한 층위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미래를 재조망하는 시선을 제공한다. |
| 질의 및 답변 | Q. 일본 3부작에서 '거리감'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br>A. 나는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으려 한다. 사물은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몰입(absorption)'과 '연극성(theatricality)'이라는 개념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미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이야기에 몰입하느라 신체의 존재를 잊기도 한다. 반면 연극성은 밖으로 밀려나가는 성질을 가진다. 나는 내 작업을 고찰할 때 이 개념들을 즐겨 사용한다. 몰입하는 상태에서 밖으로 밀려나가는 상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자에 앉아 감상하는 일반적인 서구식 프로젝션 방식은 관객을 몰입하게 만든다. 그 지점에 차이가 있다.<br><br>Q.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허락을 받았는가? 일본 영화계에서 저작권 허락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br>A. 권리 사용 허가를 구하지 않는 것 또한 내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이미지는 마치 공기 중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처럼,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야스지로 오즈의 작품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소송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그것과 관련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대체로 오즈의 흑백영화 작품은 법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이는 모호한 문제이다.<br><br>Q. 아시아에 대한 논의에서 발생하는 한·중·일의 헤게모니에 대한 문제도 근대성의 유령인가? 아시아인으로서 우리는 학살, 비극으로만 연결될 수 밖에 없나?<br>A. 두 질문의 답은 비슷해 보인다. 모두 유령에 관한 것이고, 나는 이 유령 같은 존재감에서 벗어나고 싶다. 최근 작업인 <P for Power>에서 나는 권력에 대해 생각했다.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들도 있지만, 나는 '왜 권력이 부정적인 것일까?'라고 자문 |

| | |
|---|---|
| | 해 보았다. 스스로 힘을 기르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피노자를 떠올리게 되었다.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라는 역량이나 잠재력의 관점에서 사유한다. 이는 결국 민족주의나 정치의 문제로 귀결되기도 한다. 아시아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스피노자의 사상이 그렇듯 유토피아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미래로 나아가자고 제안한다.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며 나아가는 것이다.<br><br>Q. 한국인으로서 동북아시아 연구 지속을 할 때,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이 연구를 지속하면서 국경이나 경계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나?<br>앞으로 이런 특정한 아시아 지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리서치가 중요할 것 같나?<br>A. 동남아시아는 유동적이며, 안과 밖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마치 안팎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세포(membrane)'과 같은 상태이다. 아마도 내가 학자가 아닌 예술가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나는 동남아시아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지에 더 관심이 있다. <동남아시아 비평사전 *the critical dictionary of south-east asia*>은 동남아시아의 하나의 '형태(form)'와 같다. 동남아시아 자체가 하나의 형태이고, 동시에 하나이면서 여럿이기도 하다. 나는 바로 그 형태를 찾아내고자 한다.<br><br>Q. 2026광주비엔날레의 주제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br>A. '역량(capacity)'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가능한가?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나? 나는 이번 비엔날레가 내 프로젝트와 같은 궤도에 놓여 있다고 느낀다. 변화와 재창조, 그리고 과거를 저버리지 않는 변화의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나는 비엔날레를 하나의 특정 개념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변화'와 같은 보편적인 주제로 다루고 싶다. 신체, 관계, 사회, 그리고 세계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변화를 아우르는 것이다. 우리가 변화할 때, 우리는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고 나아가는 것이다. |
| 자체 평가 | 본 강연은 호 추 니엔의 일본 3부작 작업을 중심으로 일본 제 |

| | |
|---|---|
| | 국주의와 교토학파의 사상적·역사적 맥락이 동시대 미술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작가는 일본 3부작과 <동남아시아 비평사전>, <P for Power> 등의 작업을 통해 역사적 자료와 이미지가 영상, 설치, 가상현실 등의 매체 안에서 새롭게 조직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특히 몰입과 연극성, 거리감, 권력과 역량, 경계와 유동성 등의 개념을 작품 형식과 연결해 설명함으로써 매체적 구성과 역사적 문제의식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다.<br>질의응답에서는 일본 3부작에서 거리감이 수행하는 역할, 영상 이미지의 저작권과 순환,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담론과 역사적 비극을 통한 연대, 동북아시아 연구에서의 국경과 경계, 광주비엔날레의 주제인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의 의미 등이 논의되었다. 작가는 고정된 관점보다 몰입과 거리 두기 사이의 전환을 중시하며, 아시아를 완결된 지역이나 정체성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유동적인 형태로 이해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아시아 근대성, 제국주의의 유산, 교토학파의 사상이라는 워크숍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었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참여도와 만족도도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질의응답에서 제기된 쟁점을 별도의 후속 토론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면 강연의 문제의식을 더욱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

## 부록2. 강연 증빙 자료

| 초청 강사 | 호 추 니엔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
|---|---|
| 강연 제목 | 일본 3부작: 미술, 역사, 그리고 이미지의 정치학 |

**1. 발표자료**



최종철 교수의 교토학파 설명



광주비엔날레 교토학파 심포지움(2018) 설명




<Hotel Aporia>(2019)에 대한 설명



<Voice of void>(2021) 중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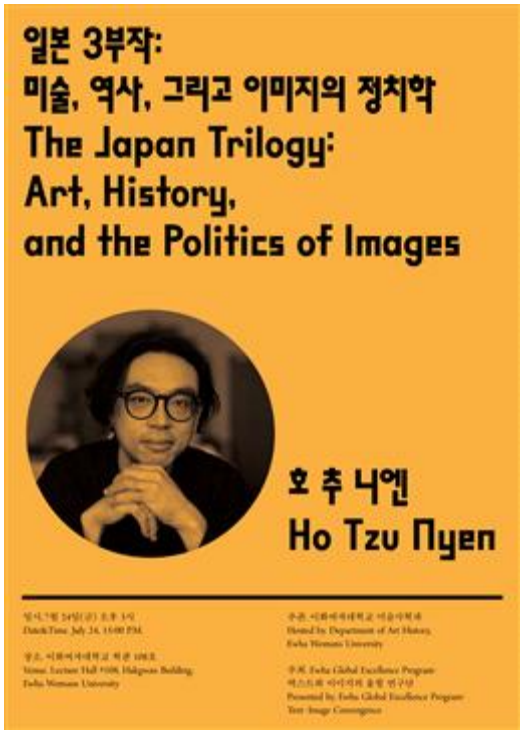


<Night March of Hundred Monsters>(2021) 중 일부



질의 응답

2. 강연 증빙 사진 (특강 포스터 / 특강 현장)








3. 강연 참석자 명부

-